8. 여름철 효과적인 축사 환기 및 파리구제 방법은?

축사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되는 측벽과 방해물은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합니다.

환풍기 이용 시에는 다수의 송풍기를 이용하여 우상열과 채식통로의 양쪽에 직하 방향으로 30~45℃ 정도의 각도로 기울여 공기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배치 간격은 송풍기 직경의 10배로 계산합니다(직경이 1미터인 송풍기의 경우 10m 간격). 풍속은 우상의 130cm 지점에서 2m/초가 되어야 합니다. 풍속이 2m/초일 경우 8.5℃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1m/초일 경우에는 6.0℃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송풍팬을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송풍팬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음이 적고 바람의 양이 많아 젖소에게 도움이 됩니다.

파리는 가축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병원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파리는 2주면 알에서 성충이 되어 다시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성충이 되면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유충기와 산란에 대한 대책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파리 알은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사멸하고 수분 50% 이하에서는 부화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우사 내의 분뇨는 자주 치워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남은 사료도 빨리 치워 사조 등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퇴비는 발효 온도를 높이고 수분을 낮추는 노력을 합니다. 살충제는 목적(유충과 성충은 유효성과 사용법이 다름)에 맞는 살충제를 선택하고 적절한 용법, 용량을 지키고 파리의 발생 주기에 맞추어 2~3주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같은 살충제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며(내성이 있음), 2종류 이상의 살충제를 번갈아 사용하도록 합니다. 최근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살충제 사용 시 주의해야 하며, 젖소의 몸체에 묻지 않도록 하고 원유 중에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낙농과 / 041-580-3384)